

# 發 刊 辭



우리 安東權氏宗報가 創刊된지 어언 十年에 이르렀으며 이를 集大成하여 宗報十年史를 刊行하게 됨은 우리 百萬族親 모두의 뜻과 마음 이 符合되어 物心兩面の 協助가 結束되었다는 證左로서 우리 모두의 榮光이며 또한 우리 門中の 發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回顧하건데 우리는 悠久한 歷史와 찬란한 傳統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명문후예로서 이 나라 坊坊曲曲에서 아니 國際社會에서 저마다 信念과 긍지를 가지고 使命에 誠實하여 生業을 營爲하며 百萬族으로 繁盛하였다는 것은 始祖太師公의 음덕이라 생각할적에 우리는 돌아가신 先祖님의 業을 標本으로 國家에 忠誠하고 社會에 奉仕하며 父母에게 孝道하고 족친간에 敦睦하는 것이 後孫된 道理요 義務라고 思料되는 바입니다.

우리 安東權氏宗報는 우리 先祖님들의 教訓을 土臺로 스승같은 啓蒙紙요 우리 百萬族親들의 動靜을 살필 수 있는 거울같은 弘報紙로서 始終 우리 中央花樹會가 우리 權門의 求心點이 되어 崇祖精神과 愛族思想을 우리 모두에게 注入시키는데 그 使命을 다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先祖의 業이 담긴 墓所와 遺蹟地를 찾는 參拜團이 늘어나고 一家의 모임처가 우후죽순처럼 組織되어가고 뿌리를 찾는 族親들이 더해감은 이것이 곧 崇祖愛族의 基本精神이 一步發展된 것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中央花樹會는 世界로 뻗어가는 國家中興과 더불어  
어 이제 고질적인 舊態依然에서 벗어나 祖上을 崇拜하는 모임  
일가간에 和睦하는 모임 특히 더욱 잘사는 모임체로서 그간 十  
年의 歷史를 다시 照明해 보고 다가오는 未來를 위해 모든 일  
들을 開發하고 創造하는 使命感을 再認識시켜 우리의 花樹殿堂  
을 위해 全力으로 投球하고자 합니다.

俗談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읍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先祖님을 모신 名門巨族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兩  
班자랑만 하지 말고 衆智를 모아 돌아가신 先祖님들의 精神을 갈  
고 닦아서 繼承하고 앞으로 時代變遷에 따라 그에 맞는 開拓精神  
으로 아름다운 花樹芳園을 이룩하여야 되겠읍니다.

아울러 宗報創刊 十周年을 맞이하여 宗報十年史를 펴내게됨에 따  
라 族親여러분께서는 門中일일 내 일일이 생각하시고 한방울의 물  
이 모여 大河를 이루듯 宗報運營에 밑거름이 되어 더 많은 힘을  
모아 주셔야 더욱 알찬 宗報가 發刊되리라 하는 마음 百萬族  
親과 더불어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건데 우리 權門이 하루속히 單一組織의 指導아래 더욱  
힘차게 發展하고 繁榮되기를 우리 모두 努力하여야 되겠읍니다.

西紀 一九八六年 三月 日

安東權氏中央花樹會

會長 權 赫